

■ 불황에 더 빛나는 '휘라포토닉스'



휘라포토닉스 근로자들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8시30분, 광주시 북구 월출동 광통신업체(주)휘라포토닉스(대표 이기승)에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. 설날 부모님 찾이를 성묘한 뒤 처가 방문까지 당일 치기로 해결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잠시, 방진복으로 길이입기에 바쁘다. 다음날까지 회사 주력 제품인 광분배기(Optical Splitter) 2만개를 KT와 일본통신기업 SEI에 납품해야 하기 때문이다.